

경제

호남권 38개 산단 광역클러스터 구축

녹색산업 동북아거점 육성

한국산업공단 비전 선포 사업 본격 추진

광·문화산업 등 융복합산업 활성화 역점

광주와 전남, 전북 등 호남권 38개 산업단지를 묶어 친환경 녹색산업의 동북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광역 클러스터가 구축된다.

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본부장 강남순)에 따르면 호남권본부는 오는 7일 오후 1시 8층 대회의실에서 안현호 지식경제부 차관과 박봉규 공단 이사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권 광역클러스터 비전 선포식'을 열고, 광역경제권 중심의

광역클러스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선포식은 기존의 클러스터 사업이 광역권으로 확대 추진됨에 따라 비전과 추진 전략을 선포하고 산·학·연·관 관계자와 공유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남권 광역클러스터는 '친환경 녹색산업의 동북아 거점 구축'을 비전으로 친환경 녹색산업, 광산업, 문화산업 기반 융·복합산업의 광역권 연계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주요 과제는 광역 가치사슬 연계 및 활성화, 특화사업기반 융합기술 사업화, 기술집약형 선도기업 육성, 녹색성장 벤처 생태계 확충 등이다. 이를 위해 호남권본부는 올해 국비 11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광주 첨단산단은 세계 5대 광산업 클러스터 단지로, 대불산단은 세계 제1의 조선·해양산업 클러스터, 군연·관 관계자와 공유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이들 4개 거점단지와 하남, 소촌, 본촌산단 등 34개 연계단지를 묶어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을 벌이

고, 거점단지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18개 산화연협의체(미니클러스터)도 운영한다.

광주·전남지역 미니클러스터는 광주에 LED·광응용·광통신·전자부품·정밀금형·산업기계 등이, 대불산단에 해양레저·조선·조선부품·해양에너지 등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강달순 호남권본부장은 "광역클러스터로의 개편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고 친환경 녹색산업, 광산업, 문화산업 융·복합 등 호남권 선도산업과 연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光銀 '러브 콘서트'

송기진(앞줄 왼쪽에서 여섯번째) 광주은행장은 3일 광주시 동구 지산동 베네치아 컨벤션홀에서 직원 신혼부부 30쌍을 초청해 'CEO와 함께 하는 러브 콘서트' 행사를 열었다. 행사가 끝난 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光銀 발목잡은 '남양'

부도 여파 부실채권 비율 1.72% 급등... 지방銀 중 최고

올해 들어 은행권의 부실채권 비율이 다시 상승 추세를 몰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은행의 경우 남양건설 법정관리를 인해 부실채권 비율이 지방은행 가운데 가장 높아졌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1.45%로 작년 말에 비해 0.21%포인트 상승했다. 은행권이 보유한 부실채권규모는 18조5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조5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 신규 발생한 부실채권 규모는 5조7000억원으로 작년 1분기(9조3000억원)나 작년 4분기(8조 원)에 비해 작았지만, 금융위가 이전

인 2007년 1분기~2008년 2분기 평균인 3조2000억원에 비해서는 컸다.

반면, 1분기 중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실적은 3조2000억원으로 작년 4분기 11조5000억원에 크게 못미쳤다. 기업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부실채권이 급증해 발생하는데도 정리규모가 급감해 부실채권비율이 상승한 것이다.

광주은행의 경우 최근 법정관리가 개시된 남양건설 대출금(200억원) 때문에 1.27%였던 부실채권 비율이 3월 현재 1.72%로 지난해말 보다 0.45% 포인트 상승했다. 건설업계 경기(9조3000억원)나 작년 4분기(8조 원)에 비해 작았지만, 금융위가 이전

가장 높았다. 농협중앙회도 광주 동광주 금융지점의 남양건설 대출금(136억원) 등 채권 회수 지연으로 3월 현재 부실채권 비율이 지난해말 보다 0.21%포인트 오른 1.62%를 기록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금융지원을 했던 지역건설업체들이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부실채권 비율이 높아지는 했으나, 담보물건을 확보했기 때문에 채권 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특히 남양건설 채권을 제외하고도 1분기 당기순이익 405억원을 기록하는 등 자산건정성은 여전히 안정적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中企 자생력 회복때까지 정부 지원을”

대한상의 “패스트 트랙 등 6월 만기편 자금난 가중”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회복할 때까지 정부의 자금 지원이 연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이날 보고서에서 “정부의 긴급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 트랙과 보증 만기연장 등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6월 말 종료되고 총액 대출한도 축소, 기준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이 본격화하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하고 부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상의는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회복할 때까지 자금 지원을 연장하고 경기 회복 속도와 자금조달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은 지원정책으로 한때 대기업보다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았지만 지금은 대기업보다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총액대출한도가 축소될 경우 중소기업에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

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자금지원 연장과 함께 직접 금융 활성화와 간접금융 다각화, 기업성장 단계별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권희부 대한상의 금융세제팀장은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면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직장인 초과근무 한달 53시간

직장인은 한 달에 정규 근무 시간보다 약 53시간을 더 근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은 최근 직장인 18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의 초과근무 시간은 하루 평균 3.1시간, 주 평균 4일로 한 달 동안 평균 53시간을 더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조사대상 중 65.8%가 업무량이 많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기업별로는 대기업 노동자(68.8%)가 과중한 업무량을 호소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68.6%), 외국계 기업(61.2%), 공기업(42.4%) 순이었다.

업무량이 많은 원인(복수 응답)으로는 비효율적인 업무체계가 59.4%가 1위를 차지했고, 그다음으로는 상사의 업무 욕심(38.6%), 단순 반복 업무(30.2%) 등이 있었다.

/*연합뉴스

채권단, 대기업 ‘옥석가리기’

6월 말까지 구조조정 대상 선정

채권은행들의 대기업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 1500여곳에 대한 기본 신용위험평가를 지난달 말까지 끝내고 세부 평가 대상을 추려냈다.

채권은행들은 이렇게 선정된 업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6월 말까지 A등급(정상),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 C등급(위크아웃·기업개선작

업), D등급(법정관리)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신용위험 평가 대상이 된 대기업 수는 지난해 1422개에서 올해 1500개 안팎으로 다소 증가했다.

그러나 영업실적과 현금흐름 등을 고려해 결정된 세부평가 대상업체 수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적은 800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의 경우 33개 기업이 구조조

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별도로 신용 평가가 진행됐던 건설, 조선, 해운업 종까지 합하면 79개 기업이 C나 D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평가가 호전된 영향으로 올해 C나 D등급을 받는 기업의 수는 60개 선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금융권의 시각이다.

6월 말까지 진행되는 세부평가에서 C등급을 받으면 채권은행과 경영정상화 약정을 맺고 자산 매각이나 인수·합병(M&A), 경비 절감 등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D등급으로 판정되면 법정관리 신청이나 채권단의 여신 회수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연합뉴스

잘나가는 기아차 ‘한턱 쏜다’

쏘울·포르테 사면 에어백 등 100만원 할인 혜택

현대·기아자동차가 인기 차종에 대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

기아자동차는 이날 중 쏘울과 포르테, 포르테 쿵 고객에게 50만원 상당의 사이드·커튼 에어백을 공짜로 달아준다. 쏘울과 포르테는 30만원 할인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는 쏘울과 포르테가 지난해와 올해 각각 ‘미국 최고 안전 차량’으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또 쏘울과 프라이드, 포르테(쿵·하이브리드 포함) 등 기아차를 처음으로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기본 판매조건에 더해 20만원을 추가로 할인해준

다. 이에 따라 기아차를 처음으로 구입하는 고객이 쏘울과 포르테를 구입할 경우에는 총 100만원의 할인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율과 포르테가 지난해와 올해 각각 ‘미국 최고 안전 차량’으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지난 4월 미국에서 총 7만4059대(현대차 4만 4023대, 기아차 3만36대)를 판매, 일

본의 닛산(6만3769대)을 제치고 업체별 판매순위에서 6위에 올랐다. 현대·기아차가 미국 시장 판매량에서 닛산을 앞선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만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Financial data table showing interest rates for various products like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and 금리 (국고채 3년).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featuring a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상무랜드공인중개사' with a '토지매매' section listing various plot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현대공인중개사' with a '토지매매' section listing various plot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부동산경매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with a table of auction listings.